

여성들이 술을 마실 때: 어떤 술을 어느 맥락에서 마시는가?

박 희 랑
전북대학교

이 장 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본 연구는 여성음주가 부끄럽거나 숨기고 싶은 문제행동이 아닌 자연스럽게 당연한 정상문화로서 여성음주의 의미와 세부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월 1회 이상 음주경험이 있는 수도권 거주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음주태도일반(선호주종, 빈도, 차수, 맥락, 음주량 등), 주종 이미지 및 선택이유, 음주량 변화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분석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들은 맥주를 선호하고, 주로 친구나 가족이 주된 음주상황이었으며, 대체로 주 1회 미만의 음주빈도로 1회 음주 시 소주 반병을 약간 넘는 정도의 음주량을 보였다. 이는 남성들의 빈도와 양에 비해 절반수준이었으며, 선행연구에 비해 맥주의 선호도가 증가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둘째, 연령에 따른 여성음주 특성은 20대에 가장 많이 마시고, 30대에 급격히 감소하다 40대 들어 다시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맥주의 선택이유는 맛이 주된 요인인 반면 소주의 선택이유는 경제적인 요인이 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맥주의 주된 이미지는 '젊음', '유행/세련'인 반면 소주의 이미지는 '오리지널/정통성', '경제적'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이는 여성들의 주종 선택이 자신을 드러내는 '기호학적 의미'를 지닐 수 있음이 시사되었다. 넷째, '친구/선후배'와 음주맥락은 여성의 경우 '가족/친지'의 맥락과 유사한 반면, 남성들은 '직장동료'의 맥락과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여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추가로 논의하였다.

주요어 : 여성음주, 음주문화, 음주성차, 음주맥락, 문화심리학

[†] 교신저자 :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98-16 현대오피스텔 1003호
Tel : 02-3144-1717, E-mail : zzazan01@hanmail.net

전통적으로 술은 조상을 모시는 제사나 중요한 잔치 등 의식을 갖추는 곳에서는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음식이자, 신성한 음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은 아무렇게나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를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술과 관련된 예법을 정리한 책인 '향음주(鄉飲酒)'는 조선시대 향교나 서원에서 학생들에게 교과목으로 가르칠 만큼 선비들에게는 중요한 예절이었다(한태선, 2000). 이런 유교적 전통으로 인해 술은 성인 남성들 이외에 아직 성숙하지 않은 아이들이나 여성들과는 거리가 먼 문화로 정착되었으며, 여성들의 음주를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으로 인식되도록 만들었다.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늘고,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여성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이 변화되면서 남성의 영역으로만 여겨져 왔던 음주문화도 여성의 참여가 급격히 상승하였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2010)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의 연간 음주율은 1998년 남자 83.4%, 여자 59.3%였는데 비해, 2010년에는 남자 93%, 여자 83.8%로 여성 음주가 남성 증가율의 2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이제 여성들의 음주가 일상화, 보편화되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여성의 음주행태는 남성의 음주행태와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음주 시작연령이 늦고, 음주패턴에서 남성보다 술을 마시는 빈도와 양이 적으며, 혼자 마시는 경우가 많다(김광기, 1996). 여성의 음주행태가 남성과 다를 뿐 아니라 음주의 효과역시 차이가 나타난다(Kinney, 2000). 같은 양의 술을 마시더라도 여성이 더 빨리 취하는데,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신체적 수분 함유량이 적어 알코올이 혈중에 남아 있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이다. 또한 술을 일차

적으로 위에서 분해해 주는 알콜분해효소(ADH)가 남성에 비해 50%정도 적기 때문에 분해를 위해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음주의 폐해 역시 여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음주폐해의 대표적인 사례는 유방암 발생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것과 임신 중 음주가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태아알콜증후군(FAS)와 같은 증상을 들 수 있다. 장기간의 음주효과로는 남성에 비해 알콜성 간경화와 알콜성 간염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정슬기, 2007).

여성 음주와 남성 음주에 대한 사회심리적 측면의 차이를 살펴보면, 우선 여성음주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어왔기 때문에 여성 음주에 대한 사실 자체를 숨기게 되고 이로 인해 여성 알콜 중독자들은 치료를 받는 것을 회피하다 문제가 심각해진 다음 치료기관을 찾는 경향이 발생된다(임선영, 조현섭, 이영호, 2005). 이러한 여성음주에 대한 전통적 인식은 여성들의 음주를 회피하거나, 적게 마시는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앞서 조사에서 드러나듯 여성음주의 보편화라는 현상은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여성음주에 대한 의미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이 시사된다. 즉 여성음주에 대한 인식은 과거에 비해 덜 부정적인 측면으로 전환되었거나 최소한 여성음주 자체가 문제라는 인식은 크게 약화되고 있다.

음주에서 남녀의 성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음주에서 여성들의 음주를 다루는 사례는 최근의 일이다(정슬기, 2007). 최근 여성음주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특징은 크게 실태조사연구(예를 들면, 김지미, 이정애, 김성희, 2002; 박희량, 이장주, 2004; 양승희, 2006 등)가 많다는 점과 음주문제 및 관련변인(가정폭력-장수미, 2008; 비만-오상우, 2009; 스트레스-한금선,

양승희, 전경구, 2003; 여성 알콜중독-임선영, 조현섭, 이영호, 2006; 우울- 김계하, 2004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실태조사연구로는 전국민을 표본으로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음주실태 및 음주문제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연구’(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2010)가 가장 대표적이다. 전체 2,105명 중 여자 1,0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를 보면 과거에 술을 마셔본 경험율은 94.3%였다. 또한 음주량은 폭음의 기준에 못 미치는 5잔 미만이 68.7%였으며, 음주빈도는 월 1회 이하(50.0%), 월 2~4회(28.3%)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처음 술을 1잔 이상 마셨을 때의 연령을 조사하는 ‘실험적 음주 시작 연령’은 평균 만 21.3세로 남자의 17.8세보다 3.5세 느리게 나타났으며, ‘정기적 음주 시작 연령’은 25.8세로 사회에 진출하면서 우리나라 여성은 본격적으로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AUDIT(The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문항(Barbor, Higgins-Biddle, Saunders, & Monteiro, 2001)을 이용하여 측정한 문제 음주율은 13.5%였으며, 이는 남성의 문제음주율인 38.7%의 대략 1/3 수준이었다. 그리고 알콜 의존자의 경우 여성 조사참여자 전체의 2.4%로 나타난 반면 남성 알콜 의존자는 13.7%로 1/5 수준이었다.

여성음주문제 관련 연구들은 주로 취약대상과 관련된 연구와 음주문제와 연관된 변인 연구로 나누어진다. 우선 음주문제 취약대상에 대한 연구로는 대학생(정슬기, 2007), 독거노인(심문숙, 2008), 중년주부(김지미, 이정애, 김성희, 2002), 직장인(김통원, 2001) 등이 있다. 이 중 여자 대학생의 문제음주에 집중한 정슬기(2007)의 연구에 의하면 또래 음주비율, 음주에 대한 기대, 과거에 경험한 스트레스 유발

사건 등은 남녀학생 모두의 음주행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반면, 음주문제 가족력은 남학생들에게만 영향을 미쳤고, 여학생들의 음주문제는 우울증세가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여대생들의 음주동기(신행우, 한성열, 1999)는 남학생들에 비해 고민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대처동기’가 높은 반면, 주변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동조동기’나 심심함이나 지루함을 달래기 위한 ‘고양동기’는 낮은 편이었다. 두 번째로 여성 음주문제 관련 변인으로는 가정폭력, 비만, 알콜중독이 가장 대표적이는데, 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의 음주관련성은 가해 남성 중 90.9%가 음주관련 문제가 있었고, 피해 여성 중 음주문제 소지자는 26.2%였다(장수미, 2008). 다음으로 비만과 음주의 관련성을 연구한 오상우(2009)에 의하면 하루 알콜섭취량이 30g초과(소주 환산 3잔)시 1.08배, 80g(360ml 소주 1병의 알콜량)초과 시 2.02배 복부비만 위험이 상승한다고 주장하였다. 여성 알콜중독자의 음주형태는 알콜중독 초기단계부터 주변의 가족이 모르게 혼자서 술을 마시는 단독음주 형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알콜중독 중기단계까지 계속되다 말기에 이르러 주변 가족들이 음주문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임선영, 조현섭, 이영호, 2005).

여성음주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주된 결론은 거의 유사한 지점으로 수렴된다. 그것은 적절한 음주는 건강과 사회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를 넘어서는 과도한 음주는 문제행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이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에서 걱정된 음주로 인한 건강상의 잇점 관련 내용은 음주문제에 비해 내용과 분량에서 작게 취급되는 것이 일반적이

다. 이렇게 음주행태를 음주문제와 연관시키는 음주연구의 풍토는 자칫 현실을 왜곡시킬 뿐 아니라 이제 일상화된 여성음주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의 개입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앞의 연구조사(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2010)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여성들의 95%는 술을 마셔본 경험이 있다. 그리고 이들 중 80%는 주 1회 이하 정도의 음주빈도와 70%는 폭음이 아닌 적정량의 음주를 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여성들은 음주로 인한 문제와는 거리가 있는 적정음주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개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양상은 소수의 문제로 마치 음주문제를 대표하는 현상처럼 과장하고 있다. 또한 음주문제의 위급성과 여성들이 음주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입 방안을 모색하더라도, 이들의 음주문제가 발생하는 바탕인 음주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문제를 해결하도록 고안된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문제 음주행동의 발달 경로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의 알콜 중독환자의 경우 남성은 80.8%의 가족력을 가지고 있던 반면 여성은 57.1%의 가족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임선영, 조현섭, 이영호, 2005)에서 여성알콜중독은 남성에 비해 유전적인 측면보다는 환경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다른 여성알콜중독연구(예를 들면, 배성일, 1993)를 통해서도 나타난 일반적인 경향이다. 또한 알콜 중독자의 음주시작은 남성의 경우 50%가 청소년 비행과 또래집단 편입과정(최은영, 1993)에서 일어났다는 보고와 남성 중독자의 첫 음주시기가 73%(임선영, 조현섭, 이영호, 2005)가 20세 이하에서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여성 알콜중독자의 경우는 대부분 성인기 이후 음주가 시작된다는 점에서도 남성과 큰 차이를 보인다(임선영, 조현섭, 이영호, 2005; 정성후, 김성부, 장기용, 손진욱, 박철수, 1997). 즉 여성 음주문제 행동의 특성은 성인기 여성 음주 환경의 이해가 선행되지 않고는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이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나타난 공통점이다.

이러한 여성음주의 맥락적 특성에 대한 연구를 보면, 여성은 교제하는 사람이나 배우자를 통해 음주를 시작하거나 음주행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남성에 비해 많은 편이다(Copeland & Hall, 1992). 또한 친밀한 사람의 음주행동은 여성 음주행동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는 연구결과(Wilsnack & Wilsnack, 1990 등)가 있다. 즉 여성음주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사회적 맥락 즉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정과 사회관계의 이해가 필수적임을 시사한다(신영주, 김유숙, 2009).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 마저 외국의 사례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국내의 연구결과로는 박희량과 이장주(2004)는 여성의 일상생활 속의 음주행태를 문제행동이 아닌 일상의 하위 문화로 설정하여 여성음주의 맥락적 환경에 대한 탐색적인 연구정도를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최근 1개월 내 술을 마셔본 경험이 있는 20~40대까지 여성 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음주상황은 ‘친구관련(40.3%)’, ‘가족관련(33.6%)’ 상황이 75%에 가까운 대표적인 여성 음주 상황이었다. 주종으로는 소주(46.2%), 약주(25.1%), 맥주(19.8%)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선호하는 술자리는 ‘친구/선후배’ 등의 사적 모임이 평균순위 1.8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배우자/이성친구(2.44)’, ‘가족/친

지(2.75)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장동료’와 ‘직장상사/어른’은 하위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선호되는 주음용 주종은 ‘친구/선후배’와 술자리에는 ‘소주’가 가장 선호되었고, ‘배우자/이성친구’는 ‘맥주’가 가장 선호되었다. ‘가족/친지’의 모임에서는 ‘약주’가 선호되는 상황과 주종의 조합이 나타났다.

기존 여성 음주행위는 전통적 성역할에서 일탈된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영역이었다면, 현재 문화는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활동으로 변하면서 자연스럽고, 당연한 행동으로 변화되었다. 이런 시대적 변화를 연구에 반영하여, 이들의 행동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박희량과 이장주(2004)의 연구는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이들 연구 역시 한계가 존재한다. 우선 모든 문화가 그렇듯이 음주문화도 사회문화적 변동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점에서 7년 전의 자료를 토대로 현재의 여성 음주문화에 대입하기는 어려우며, 최신의 경향을 반영한 연구들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이들 연구는 비교적 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여성 음주 상황에 대한 맥락을 추출하였지만, 이것이 정말 여성음주의 독특한 특성인지 아니면 음주 상황의 일반적인 특성인지까지 구분해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음주 상황과 맥락에 대한 남녀 차이를 고려해야만 여성의 독특한 음주특성을 좀 더 명확히 밝혀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에 대한 연구에서 일반적인 음주상황의 맥락을 도출하는 것은 의미가 있었지만 실제로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구체적인 맥락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친구/선후배’와의 술자리에서 ‘소주’가 선호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를 세분화한 맥락적 이해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박희량과 이장주(2004)의 후속연구의 성격을 지닌다. 구체적으로 여성의 하위문화로서 음주문화가 선행 연구에 비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던 술자리의 맥락과 의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남녀의 비교를 통해 명료화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주종과 음주상황을 중심으로 여성의 음주 맥락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 연구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여성음주행태의 특성은 어떠하며 이것은 어떤 성별 차이를 보이는가?
- 2) 여성들의 연령과 사회적 활동(직업)은 음주행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3) 여성들이 주로 마시는 주종의 선택 이유는 무엇인가?
- 4) 여성 음주의 맥락에 따른 음주행태 및 음주량은 어떤 변화가 있는가?
- 5)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와 어떤 차이를 보였는가?

연구방법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최근 1개월 동안 최소 1회 이상 술을 마신 경험이 있는 수도권 소재 20세~59세 남성 495명과 20세~49세 여성 3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들의 평균연

1) 표집방법이 편의표집이라는 점에서 일반화의 문제가 제기되지만, 선행연구가 없었다는 불가피성이 있다. 그리고 여성음주에 대한 탐색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표집방법이 연구목적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구분	성 별		전체(%)
		남(%)	여(%)	
연령	20대	125(15.6)	110(13.8)	236(29.4)
	30대	139(17.4)	104(13.0)	243(30.3)
	40대	115(14.4)	91(11.4)	206(25.8)
	50대	115(14.4)	0(0)	115(14.4)
학력	고졸 이하	164(20.5)	115(14.4)	279(34.9)
	대학교 재학	55(6.8)	48(6.0)	103(12.8)
	대졸 이상	276(34.5)	142(17.8)	418(52.3)
직업	학생	58(7.2)	49(6.1)	107(13.3)
	자영업	132(16.5)	18(2.2)	150(18.7)
	화이트칼라	170(21.2)	56(7.0)	225(28.2)
	블루칼라	132(16.5)	70(8.7)	202(25.2)
	전업주부	0(0)	113(14.1)	113(14.1)
	기타	3(4)	0(0)	3(4)
월평균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38(17.3)	76(9.5)	214(26.8)
	351만원~450만원	201(25.1)	128(16.0)	329(41.1)
	451만원 이상	156(19.5)	101(12.6)	257(32.1)
합 계		495(61.9)	305(38.1)	800(100.0)

령은 36.9세(표준편차 10.2)였다. 이들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었다.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선행 여성음주 연구(박희량, 이장주, 2004)의 후속연구라는 점에서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도구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선행연구의 제한점으로 밝혔던 세부사항에 대한 문항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여 사용하였다.

도구에서 측정된 내용을 연구문제로 나누어 살펴보면, 연구문제 1을 위해서 주로 마시는 주음용 주종(소주, 맥주, 기타 등), 음주빈도(주 4회 이상, 주 2~3회, 주 1회, 월 3회 이하), 음주차수(1차에서 끝냄, 2차, 3차 이상), 음주상

황(식사 반주, 가족/친지모임, 직장동료, 친구/선후배, 기타-접대 등), 음주량(소주 기준) 등 음주관련 일반사항에 대해 측정하였다. 남성과 차이를 주로 밝히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던 연구문제 1에서 좀 더 상세한 여성음주행동을 밝히기 위한 연구문제 2는 연구문제 1에서 측정된 내용을 여성피험자에 국한해서 음주와 관련성이 높은 변인인 직업(학생, 사무직, 생산직, 전업주부 등)과 연령(20대, 30대, 40대)에 따라 여성음주행동의 차이를 밝히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는 없었던 음주의 맥락과 의미를 밝히기 위한 연구문제 3을 위해서 본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주종인 소주, 맥주의 선택 이유와 이미지를 측정하였다. 이유와 이미지 측정을 위해서 주종의 선택 이유를 개방형으로 질문하였고, 주종에 따른 이미지를 9

가지 차원(신뢰감, 오리지널/정통성, 고급스러운, 친근한/편안한, 유행/세련, 건강/웰빙, 젊음, 중년, 경제적)에서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여성 음주문화의 변화 양상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문제 4를 위해 음주 맥락(식사 반주, 가족/친지, 직장동료 등)에 따른 음주 행동의 특성(주종선택, 음주 차수, 음주량 등)과 음주량의 변화 추세를 현재기준(100) 과거와 미래음주량의 변화 정도 및 의향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얻어 분석의 기초자료로 사용하였다.

절차

본 연구의 조사는 조사의 목적을 충분히 숙지한 조사자가 조사참여자에게 전화를 통하여 응답을 얻었다. 조사 시기는 2010년 10월에 실시되었으며,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조사의 일부로서 삽입되어 실시되었다. 조사 참여자는 연구 목적에 맞게 월 1회 이하의 음주 경험자나 비음주자는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최종 분석에 이용된 참여자는 남녀 총 800명이었다.

분석은 통계프로그램인 SPSS 15.0을 이용하였다. 주요 분석내용은 음주행태 일반의 성차와 여성들의 연령, 직종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카이검증(χ^2)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성별, 연령별, 직업별 음주량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과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종에 따른 이미지 차이와 과거와 미래의 음주량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상용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음주량은 주종에 따른 알콜

의 비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알콜 함량 20%인 360ml 소주(알콜량 72ml)를 기준으로 환산하였다. 예를 들면, 알콜 함량 4.5%인 500ml 맥주 1병은 알콜량이 22.5ml이며, 이를 소주로 환산하면 0.31병이된다. 이런 방식으로 변환시켜 음주량을 산출하였다.

결 과

연구문제 1. 여성음주행태의 특성

음주 행동 일반을 살펴보기 위해 주로 마시는 술의 종류, 1개월 평균 음주 빈도, 음주시 평균 차수, 음주 상황, 음주량에 대해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한 응답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주로 음용하는 주종을 알아본 결과, 소주(59.7%)와 맥주(34.3%)를 90% 이상이 즐기는 술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막걸리, 와인, 약주, 과일주 등의 주종을 주로 즐긴다고 응답한 조사참여자는 6%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주요 음용하는 주종으로 소주와 맥주를 선호하는 비율은 남녀 다르게 나타났는데, 여성의 경우는 맥주(55.9%)가 소주(35.3%)보다 더 높은 응답빈도를 보였다. 동일한 음주량이라도 남성보다 취약한 여성들은 소주보다 상대적으로 알콜 함량이 낮은 맥주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음주빈도를 살펴보면 주 1회 이하가 57.8%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 2~3회가 30.2%, 11.1%가 주4회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이 패턴 역시 여성 응답자의 경우는 다르게 나타났다. 여성들은 주 1회 이하가 75%를 상회하는 대다수로 응답했고, '주 2~3

표 2. 여성음주의 일반적인 행태(단위: 명)

구 분		여(%)	남(%)	합계(%)	χ^2
주로 마시는 술의 종류	소주	108(35.3)	370(74.4)	478(59.7)	122.93***
	맥주	171(55.9)	104(21.0)	275(34.3)	
	기타	26(8.8)	21(4.2)	47(6.0)	
평균음주빈도	주 4회 이상	13(4.2)	76(15.4)	89(11.1)	91.64***
	주 2~3회	61(19.9)	181(36.6)	242(30.2)	
	주 1회	69(22.5)	127(25.7)	196(24.5)	
	월 3회 이하	162(53.3)	111(22.4)	273(34.2)	
술 마실 때 평균 차수	1차	204(66.9)	218(44.0)	422(52.8)	40.28***
	2차	86(28.2)	246(49.7)	332(41.5)	
	3차 이상	15(4.9)	31(6.3)	46(5.8)	
주로 술을 마시는 상황	식사 시 반주	37(12.1)	70(14.2)	107(13.4)	68.44***
	가족/친지모임	59(19.3)	26(5.3)	85(10.6)	
	직장동료	36(11.8)	138(27.9)	174(21.8)	
	친구/선후배	164(53.6)	229(46.4)	393(49.1)	
	업무/접대	1(3)	17(3.4)	18(2.3)	
기타	9(2.9)	14(2.8)	23(2.9)		
음주량평균(SD)	소주(360ml) 1병기준	.60(.46)	1.18(.70)	0.96(.68)	t=13.82***
합 계(명)		305	495	800	

주 1. * $p < .05$, ** $p < .01$, *** $p < .001$

회'와 '주 4회 이상'은 대략 25%였다. 남성들의 경우는 주 1회 이하가 48%인 반면 주 2회 이상이라는 응답이 50%를 넘었다. 이를 요약해 보면, 남성들의 경우 주 1회 이상 음주가 대다수의 반응이라면, 여성의 경우는 주 1회 이상의 음주가 절반이하로 성별간 차이가 나타났다.

한편, 음주 차수를 살펴보면 1차에서 마치는 경우가 52.8%였고, 2차가 41.5%로 다음이었고 3차 이상이 5.8%였다. 이를 성별로 분석해 보면 남성들은 2차가 49.7%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인 반면 여성의 경우는 1차에서 마치는 비율이 66.9%로 나타났다.

또한 음주상황으로 '친구/선후배'와 술을 마

신다는 응답이 49.1%로 가장 높은 응답을 하였고, 다음으로 '직장동료', '식사 시 반주', '가족/친지 모임', '업무/접대' 순으로 나타났다. 소수 의견인 기타의 응답은 '혼자서'와 같은 반응들이 포함되었다. 이를 성별로 분석해보면, 여성의 주요 음주 상황은 '친구/선후배'가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족/친지모임'이 19.3%, '식사 시 반주', '직장동료'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들의 음주상황인 '친구/선후배', '직장동료', '식사 시 반주', '가족/친지' 순과 비교해보면 여성 음주 상황의 특성이 드러난다. 우선 남성들은 '직장동료', '식사 시 반주'가 두 번째, 세 번째 인 것과 비교해 여성들은 '가족/친지 모임', '식사 시 반주'

가 두 번째, 세 번째로 나타났다. 이것은 여성들의 친구 이외에 음주 상황이 가족/친지들과 식사 중에 마시는 것이 주된 상황이라면, 남성들은 직장동료와 식사 시 술을 마시는 것이 친구 이외의 주된 음주상황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음주량을 살펴보기 위해 소주 음용량으로 변환하여 산출한 1회 음주량은 0.96으로 대략 소주 1병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60으로 소주 4잔 정도를 1회에 마시는 반면 남성은 1.18로 1병이 약간 넘는 양의 술을 마셨다. 이것은 남성이 여성보다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양을 마시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t=13.82, p<.001$).

이를 종합해 보면, 남성들은 소주를 거의 주 2회 이상 친구나 직장 동료와 2차까지 마시고 한 번 음용 시에 소주 1병 이상을 마시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에 비해 여성들은 맥주를 1주에 한 번 마실까 말까하는 빈도로 음용하며 주로 친구나 가족과 식사 시 1차로 끝내며 주량은 소주 반병이 약간 넘는 정도라고 요약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음주가 남성과 여성에게 다른 심리적 기능을 가지고 있음이 시사된다. 즉 남성의 경우 음주는 ‘사회적 맥락’에서 WHO 기준으로 과음(5잔 이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 여성들의 경우는 과음의 기준에 못 미치는 정도로 ‘사적인 맥락’에서 주로 음주맥락이 형성되었다. 이것은 남성들이 과음의 상태에서 ‘술’의 힘으로 ‘사회적 맥락’의 문제나 심리적 압력을 해결하려는 도구적 측면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적어도 여성들은 남성과 다른 ‘사회적 맥락’의 문제나 심리적 압력을 해결하는 다른 수단이나 기제를 가지고 있음이 시사

된다.

연구문제 2. 여성들의 연령과 사회적 활동(직업)과 음주행태 특성

다음으로 음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변수 중 하나인 연령을 중심으로 여성들의 음주 행동에 집중해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우선 연령을 20대, 30대, 40대로 나누어 주종의 선택과 관련된 특성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맥주의 비중이 가장 크지만 2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소주의 비중이 높았다. 이는 체력이 강해서 알콜 함량이 높은 독한 술인 소주를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는 신체적인 특성과 함께 소주가 저렴하다는 점에서 경제적이라는 측면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한 20대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이유로 추론해 볼 수 있다. 30대의 경우는 맥주의 선호도가 매우 높았던 반면 소주의 선택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4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약주, 와인, 막걸리, 과일주와 같은 웰빙 트렌드의 주류가 포함된 ‘기타’ 주류의 선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음주 빈도는 공통적으로 ‘월 3회 이하’ 즉 주 1회 미만이 가장 많은 응답비율을 보였지만, 그 다음 순위 비율에서 20대는 주 2~3회였던 반면, 30대와 40대는 주 1회가 그 다음 순 이었고, 주 2회 이상은 20% 정도의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이는 20대들이 상대적으로 가정이나 사회로부터 자유롭다는 측면과 빈번한 음주를 감당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이 함께 결합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해석은 음주 차수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20대는 술을 2차 이상 마시는 비율이 50%

표 3. 연령에 따른 여성음주행태의 특성(단위: 명)

구 분		20대(%)	30대(%)	40대(%)	합계(%)	χ^2
주로 마시는 술의 종류	소주	49(44.1)	28(27.2)	31(34.1)	108(35.4)	9.81*
	맥주	56(50.5)	66(64.1)	48(55.9)	170(55.7)	
	기타	6(5.4)	9(8.7)	12(13.2)	27(8.9)	
평균 음주빈도	주 4회 이상	8(7.2)	2(1.9)	3(3.3)	13(4.2)	8.10
	주 2~3회	27(24.3)	19(18.3)	15(16.5)	61(19.9)	
	주 1회	24(21.6)	21(20.2)	24(26.4)	69(22.5)	
	월 3회 이하	52(46.8)	62(59.6)	49(53.8)	163(53.6)	
술 마실 때 평균 차수	1차	57(51.8)	76(73.1)	71(78.0)	204(66.9)	20.62***
	2차	42(38.2)	25(24.0)	19(20.9)	86(28.2)	
	3차 이상	11(10.0)	3(2.9)	1(1.1)	15(4.9)	
주로 술을 마시는 상황	식사 시 반주	4(3.6)	18(17.3)	15(16.3)	37(12.2)	42.36***
	가족/친지모임	7(6.4)	31(29.8)	21(22.8)	59(19.3)	
	직장동료	19(17.3)	5(4.8)	12(13.0)	36(11.8)	
	친구/선후배	77(70.0)	46(44.2)	41(44.6)	164(53.8)	
	기타(접대 등)	3(2.7)	4(3.9)	2(2.1)	9(2.9)	
음주량평균(SD)	소주(1병)기준	.69(.51)	.53(.40)	.59(.45)	.60(.46)	F=3.02
합 계(명)		110	104	91	305	

주 1. * $p < .05$, ** $p < .01$, *** $p < .001$

에 가까운 반면 30대와 40대는 각각 26.9%와 22%로 나타나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음주상황에서는 ‘친구/선후배’가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응답범주를 보였지만, 특히 20대(70.0%)에서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다. 반면 30대(29.8%)와 40대(22.8%)의 경우는 두 번째 상황으로 ‘가족/친지모임’이 빈번한 음주상황이었지만 20대의 경우는 6.4%로 1/4 수준으로 경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음주량 역시 20대(.69)에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40대(.59), 30대(.53) 순이었다. 음주량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수준($F(2, 302) = 3.02, p = .0501$)에 근접한 상태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20대

의 많은 음주량이 30대에서 급격히 줄어들다가 다시 40대에 늘어나는 것은 30대 여성들이 결혼 적령기와 어린 자녀 육아를 담당하는 생애주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인 요인의 변화가 음주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연령이 신체적, 사회적 요인과 함께 여성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지만 신체적인 측면의 영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좀 더 사회적인 음주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직업별 음주행동에 대해 분석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에서 ‘자영업’ 종사자는 사례수가 많지 않아 이후 이들에 대한 결과는 표에 제시하였지만, 해석은 생략하였다.

주음용 주종을 직업별로 살펴보면, 우선 소

표 4. 직업에 따른 여성음주 행태의 특성(단위: 명)

구 분		학생 (%)	자영업 (%)	사무직 (%)	생산직 (%)	전업주부 (%)	합계 (%)	X ²
주로 마시는 술의 종류	소주	21(42.9)	10(55.6)	22(40.0)	28(40.0)	26(23.0)	107(59.7)	18.78*
	맥주	27(51.1)	8(44.4)	27(49.1)	33(47.1)	76(67.4)	171(34.3)	
	기타	1(2.0)	-	6(10.9)	9(12.9)	11(9.7)	27(8.9)	
평균 음주빈도	주 4회 이상	4(8.3)	-	3(5.5)	3(4.3)	2(1.8)	12(3.9)	38.04***
	주 2~3회	11(22.9)	1(5.6)	11(20.09)	25(35.7)	13(11.5)	61(20.1)	
	주 1회	12(25.0)	8(44.4)	12(21.8)	18(25.7)	18(15.9)	68(22.4)	
	월 3회 이하	21(43.8)	9(50.0)	29(52.7)	24(34.3)	80(70.8)	163(53.6)	
술마실 때 평균 차수	1차	21(42.9)	14(77.8)	35(63.6)	46(66.7)	87(77.0)	203(66.8)	26.33**
	2차	22(44.9)	4(22.2)	15(27.3)	19(27.5)	26(23.0)	86(28.3)	
	3차 이상	6(16.1)	-	5(9.1)	4(5.8)	-	15(4.9)	
주로 술을 마시는 상황	식사 시 반주	2(4.2)	2(11.1)	6(10.7)	3(4.3)	24(21.1)	37(12.1)	69.51***
	가족/친지모임	3(6.3)	5(27.8)	4(7.1)	11(15.7)	36(31.6)	59(19.3)	
	직장동료	-	1(5.6)	13(23.2)	22(31.4)	-	36(11.8)	
	친구/선후배	40(83.3)	10(55.6)	33(58.9)	31(44.3)	50(43.9)	164(53.6)	
기타(접대 등)	3(6.3)	-	-	3(4.3)	4(3.5)	10(3.3)		
음주량평균(SD)	소주기준	.73(.57)	.82(.48)	.66(.46)	.61(.42)	.49(.41)	.60(.46)	F=3.83**
합 계(명)		49	18	55	70	113	305	

주 1. * p<.05, ** p<.01, ***p<.001

주는 대부분의 여성에게 가장 선호되는 반면 ‘전업주부(23.0%)’에게는 상대적으로 선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맥주의 경우는 반대로 ‘전업주부(67.4%)’에게 선호되었다.

음주빈도는 ‘전업주부’가 가장 적은 횟수로 마시는 ‘월 3회 이하’가 7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비교적 자주 술을 마시는 ‘주 2~3회 이상’은 ‘생산직’ 종사자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학생’들이었다. 음주 차수는 ‘전업주부’가 77% 안팎의 1차 음주 차수를 보고한 반면 직장인인 ‘사무직’과 ‘생산직’은 63.6%, 66.7%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학생의 경우는 1차(42.9%)로 술을 마시는 것을 끝

내는 경우보다는 2차(44.9%)를 가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3차 이상(16.1%) 역시 다른 직종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것은 20대의 음주 성향과 비교해 볼 때 연령의 특성이라기보다는 학생이라는 사회적 역할의 특성이 2차 이상의 음주 행동을 만드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음주량의 경우는 ‘학생(.73)’들이 가장 많이 마시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업주부(.49)’는 가장 적게 마시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4,300)=3.83, p<.01$). 이를 사후 검증 결과 ‘학생’과 ‘전업주부’는 다른 직종의 집단과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직종에 따른 음주 행동을 요약해 보면, 학생들은 소주와 맥주를 주 1회 이상 마시고, 마실 때 2차 이상 가며 대부분 ‘친구/선후배’와 1번 마실 때 소주 3/4 병을 마신다. ‘사무직’과 ‘생산직’ 종사자는 유사한 음주 행동 패턴을 보였는데, 이들은 ‘맥주’를 ‘소주’보다 약간 더 선호하며 음주빈도는 주 1회 이상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술을 마실 때 3번에 1번 정도 2차를 가며 주로 친구, 선후배나 직장동료가 주된 술친구였다. 이들의 음주량은 .6병으로 여성 음주자 평균 수치정도를 마신다. 마지막으로 전업주부의 경우는 대부분 ‘맥주’를 거의 주 1회 미만으로 마신다. 마시는 차수도 거의 1차에서 끝내며 이들은 친구, 선후배나 가족, 친지와 마시는데 1회에 마시는 양은 소주 반병에 못 미치는 양을 마신다.

연구문제 3. 주종 선택 이유 및 이미지

여성음주 행동의 특성을 보다 세밀하게 알아보기 위해 이들이 주로 마시는 소주와 맥주에 대해 선택 이유와 이미지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는 표 5와 표 6에 제시되었다.

소주를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로 ‘가격이 저렴해서’와 같은 경제적인 이유를 들었다. 다음으로 소주의 특성인 ‘맛이 깔끔해서’, ‘쉽게 넘어가서’ ‘부드러워서’, ‘안주와 잘 맞아서’가 상위 5위의 선택이유였다. 이런 패턴은 남성들의 패턴과 거의 비슷했다는 점에서 소주를 선택하는 이유는 성차가 크게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소주를 선택할 때는 안주와 어울리는 저렴하고 깔끔한 맛의 주종을 찾을 때 선택하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반면 맥주의 경우는 크지는 않지만 남자와 여자의 주종 선택의 차이가 나타난다. 맥주를 선택하는데 ‘부드러워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맛과 연관된 ‘상쾌한 맛이 나서’가 두 번째 응답율을 보였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는 세 번째가 ‘알콜 도수가 낮아서’였고 ‘쉽게 넘어가서’와 약간의 차이로 ‘쓴 맛이 적어서’라는 응답이 순서대로 나왔다. 이는 남자들의 경우 ‘알콜 도수가 낮아서’나 ‘쓴 맛이 적어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여성들이 맥주를 선택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맥주의 맛 자체로 부드럽고 상쾌한 맛을 느끼

표 5. 소주/맥주를 선택하는 이유(단위: 명)

	구 분	여(%)	남(%)
소주	1. 가격이 저렴해서	40(37.0)	147(39.7)
	2. 맛이 깔끔해서	18(16.7)	49(13.2)
	3. 쉽게 넘어가서	13(12.0)	48(13.0)
	4. 부드러워서	15(13.9)	45(12.2)
	5. 안주와 잘 맞아서	4(3.7)	22(5.9)
맥주	1. 부드러워서	21(42.9)	30(42.9)
	2. 상쾌한 맛이 나서	27(15.8)	17(16.8)
	3. 쉽게 넘어가서	17(9.9)	15(14.9)
	4. 알콜 도수가 낮아서	24(14.0)	4(4.0)
	5. 쓴 맛이 적어서	16(9.4)	4(4.0)

표 6. 술의 종류에 따른 이미지 차이

이미지	여(<i>n</i> :237)		<i>t</i>	남(<i>n</i> :467)		<i>t</i>
	소주(<i>SD</i>)	맥주(<i>SD</i>)		소주	맥주	
신뢰감	4.00(.53)	4.00(.46)	-0.046	4.07(.49)	4.03(.53)	1.506
오리지널/정통성	4.05(.72)	3.81(.73)	3.643***	4.09(.67)	3.78(.73)	6.866***
고급스러움	3.46(.87)	3.81(.74)	-5.444***	3.57(.84)	3.84(.65)	-6.365***
친근함/편안함	4.05(.68)	4.06(.61)	-1.177	4.15(.65)	3.97(.69)	4.667***
유행/세련	3.73(.71)	3.88(.66)	-2.542*	3.89(.68)	3.85(.67)	.965
건강/웰빙	3.62(.71)	3.71(.70)	-1.707	3.63(.77)	3.77(.73)	-3.452**
젊음	3.72(.80)	4.04(.65)	-4.606***	3.76(.72)	4.05(.67)	-6.088***
중년	4.03(.73)	3.62(.77)	5.872***	4.07(.70)	3.71(.77)	8.293***
경제적	4.01(.61)	3.66(.71)	6.126***	4.09(.58)	3.77(.66)	8.058***

주1. * $p < .05$, ** $p < .01$, *** $p < .001$

고 싶을 때 선택하는 경우와 소주나 그 외의 주종이 알콜 도수가 높거나 쓴 맛이 강해서 이를 대체할 주종으로 맥주를 선택하는 경우가 그 다음 경우이다.

맥주와 소주를 선택할 때 인지적인 동기의 배경이 되는 이미지 차원을 알아보기 위해 음주와 관련된 이미지를 각각의 주종에 대해서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런 편이다, 5: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여 평균값과 이것을 비교하기 위해 상용표본 *t*-검증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우선 소주에 대한 이미지(5점에 가까울수록 긍정적인)의 평균과 *t*-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친근함/편안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오리지널/정통성’, ‘경제적’, ‘중년’ 이미지 순의 내용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율을 보인 이미지는 ‘고급스러움’, ‘젊음’은 맥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 맥주에 대한 이미지는 ‘젊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신뢰감’, ‘친근/편안함’, ‘유

행/세련’, ‘고급스러움’의 순으로 이미지가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중년’, ‘경제적’, ‘오리지널/정통성’ 이미지는 소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다는 응답이 주로 나왔다. 이를 요약하면, 소주는 오래 전부터 ‘친근하고 편안한’ ‘믿을 수 있는’ ‘튼튼한 형님/아버지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반면 맥주는 ‘고급스럽고, 세련되면서도 믿을 수 있는 젊은 친구’의 이미지가 강하다.

이러한 이미지를 남녀의 성차에 따라 살펴보면, 소주와 맥주에 대한 이미지 차이를 알 수 있다. 남성들은 여성들에 비해 소주에 대해 ‘친근함/편안함’의 정도를 유의미하게 높게 지각하고, 맥주에 대해서는 ‘건강/웰빙’의 이미지를 강하게 지각하고 있었다. 여성들은 맥주에 대해 더 ‘유행/세련’이라는 이미지를 소주에 비해 유의미하게 지니고 있는 반면, ‘친근함/편안함’이나 ‘건강/웰빙’의 이미지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여성들에게 소주와 맥주는 모두 ‘친근하고/편안하며’, ‘신뢰’롭지만 소주는 특히 세월의 시류에 흔들리지 않는 ‘오

리지널/정통성’, ‘중년’의 이미지와 ‘경제적’이라는 서민적인 이미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 반면 맥주를 마실 때는 젊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경험한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연구문제 4. 맥락에 따른 여성 음주 행태 및 음주량 차이

주요 상황에 따른 여성들의 음주행태를 분석한 표 7을 살펴보면, 맥주가 가장 많이 선택되는 상황은 ‘가족/친지’, ‘식사 반주’, ‘친구/선후배’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주가 가장 많이 선택되는 상황은 ‘직장동료’로서 오히려 여성들이 선호하는 주종인 맥주보다 2배 이상 높은 63.9%의 응답을 보였다. 이와 같이 상황에 따른 선택 주종이 다르다는 것은 음주 상황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런 점에서 ‘친구/선후배’와 마시는 상황은 사회적 음주상황이지만 이것이 ‘직장동료’와 마시는 음주의 성격보다는 ‘가족/친지’와 함께 마시는 음주상황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음주의 성격적인 측면과 주류선택의 패턴의 유사성이 선행연구와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선행연구에서는 소주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약주, 맥주의 순서이었던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맥주의 순위가 올라갔고 약주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소주가 그 뒤를 이었다. 이런 점은 과거의 약주 소비자가 소주보다는 맥주로 이동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웰빙 열풍으로 저도수 소주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주보다는 맥주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여성 음주자들의 행동이 이행되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황에 따른 음주 차수를 살펴보면, ‘식사반주’는 거의 대부분 ‘1차’에서 끝났다. ‘가족/친지’와 ‘선후배’의 술자리에는 1차에서 끝나지 않고 2차를 가는 경우가 20%를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직장동료와의 술자리는 2차가 거의 일반적인 경향으로 45%가량이 응답했으며, 다시 3차를 가는 경우는 11%로 나타났다. 즉 직장동료와 술자리는 1차로 끝나기 보다는 차수를 변경하여 길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패턴은 남성들의 음주 패턴 비교할 때, 직장동료와 음주 시 2차와 3차를 가는 경우가 각각 44.2%, 2.9%로 1차에서 끝내는 경우의 비율이 약간 낮은 정도였다. 그러나 친구/선후배와의 경우는 여성들의 경우와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남성들의 경우는 2차를 가는 경우 42.4%, 3차를 가는 경우 4.4%로 ‘직장동료’와

표 7. 주요 상황에 따른 주종 선택 및 음주량의 차이

구 분	구분	식사 반주	가족/친지	직장동료	친구/선후배	비고
술의 종류	1순위	맥주(51.4)	맥주(57.6)	소주(63.9)	맥주(48.2)	(%)
	2순위	소주(37.8)	소주(32.2)	맥주(30.6)	소주(39.0)	
음주 차수	1차	36(97.2)	47(79.7)	20(55.5)	130(79.3)	빈도(%)
	2차	1(2.8)	10(16.9)	12(33.3)	34(20.7)	
	3차 이상	-	2(3.4)	4(11.1)	-	
음주량(SD)	소주기준	.49(.46)	.51(.37)	.87(.49)	.61(.45)	F=5.59**
합 계(명)		37	59	36	164	

주 1.* p<.05, ** p<.01, *** p<.001

술을 마시는 상황과 유사한 특성을 보였다. 즉 여성들의 경우 ‘친구/선후배’는 ‘가족/친지’와 유사한 성격의 음주 상황인 반면 남성들의 ‘친구/선후배’와 술을 마시는 상황은 ‘직장동료’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특성이 나타났다.

상황에 따른 음주량을 비교해보면, ‘식사 반주’, ‘가족/친지’, ‘친구/선후배’, ‘직장동료’ 순으로 술을 많이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F(3,290)=5.59, $p<.01$). 이를 사후검증 해 본 결과, ‘직장동료’와 마시는 음주량이 다른 경우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에 따른 음주량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현재 마시는 술을 100으로 가정하고, 과거에 마셨던 정도와 미래에 마실 것으로 예측하는 정도를 100을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는 표 8에 제시되어있으며, 이를 선행연구와 비교를 위해 직업에 따라 분석하였다.

우선 소주음주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현재 100을 기준할 때 과거 소주 음주량은 모든 직종에서 100미만이라는 점에서 덜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영업 종사자의 경우 5% 가량 덜 마셨다고 보고했으며, 나머지 직종에서는 2%안팎이었다. 과거 소주 음주량의 합계는 98.35로 약 1.7%가량 덜 마신 것으로 나타났

다. 미래의 소주음주량 예상치를 보면 사무직 종사자를 제외하고 100보다 약간 높은 수치인 100.29 보여주고 있다($t=-2.23$, $p<.05$). 하지만 이들의 합계 수치가 100.29로 거의 현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마실 것으로 예상한다고 조사되었다. 과거 대비 미래의 소주 음주량 차이를 직종별로 검증한 결과 학생들에게서만 유의미한 증가($t=-2.07$, $p<.05$)가 나타났으며, 나머지 직종에서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맥주의 음주량 변화 역시 소주와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과거 음주량은 99.28로 거의 현재와 비슷한 양을 마셨다. 이러한 차이는 직종별로 크지 않게 나타났다. 반면 미래 맥주 음주량의 예상량은 103.01로 현재보다 조금 더 마실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과거음주량 평균 대비 미래 음주예상량 증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t=-5.30$, $p<.001$). 이를 직종별로 보면, 사무직과 전업주부들의 증가량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연구문제 5.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를 통한 여성음주문화 변화

이러한 결과들을 선행연구(박희량, 이장주,

표 8. 직업에 따른 여성음주량 변화(단위: 현재=100)

구 분	학생	자영업	사무직	생산/ 판매직	전업주부	합계(%)	
소주	과거	97.97	94.44	98.01	99.70	98.42	98.35
	미래	101.35	100.61	98.93	102.86	100.01	100.29
	<i>t</i>	-2.07*	-1.83	-.80	-.45	-1.27	-2.23*
맥주	과거	98.95	98.78	99.83	99.53	99.08	99.28
	미래	101.51	104.35	103.42	101.55	104.13	103.01
	<i>t</i>	-1.27	-1.84	-3.06**	-1.55	-3.94***	-5.30***
현재음주량(SD)	소주환산(병)	.73(.57)	.82(.48)	.66(.46)	.61(.42)	.49(.41)	.60(.46)

주 1. * $p<.05$, ** $p<.01$, *** $p<.001$

2004)와 비교해보면 7년 사이에 여성의 선호 주종에서 차이가 발견된다. 선행연구에서는 월 1회 이상 술을 마시는 여성들 가운데 소주(46.2%)가 가장 인기가 있었고, 다음으로 백세주나 산사춘과 같은 약주(25.1%)와 맥주(19.8%)의 순으로 나타났었다. 그런데 본 조사에서는 맥주가 55.7%로 가장 선호되고, 그 다음으로 소주가 35.4%로 나타났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2위로 나타났던, 약주의 주음용율이 대폭 하락하여 2% 미만인 기타로 줄어들었다. 이는 이전에 약주를 마시던 여성들 대부분과 소주를 마시던 여성들 중 4분의 1이 알콜도수가 낮은 맥주로 이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음주맥락에 따른 주종 선호의 경향을 비교해보면, 선행연구에서는 ‘친구/선후배’, ‘직장 동료’, ‘가족친지’ 등 모든 영역에서 ‘소주’가 가장 선호되었으나, ‘직장동료’와의 음주맥락에서 소주의 선호도가 61.4%였던 반면 나머지 맥락에서는 40% 안팎으로 차이가 났었다. 이러한 결과를 본 연구결과와 비교해보면, 여전히 ‘직장동료’와 마시는 술은 ‘소주(63.9%)’였지만, 나머지 맥락에서는 ‘맥주’가 주된 음용 주종으로 나타났다.

음주량 변화를 비교해 보면, 현재 음주량은 2004년에 .44병(25% 알콜함량 기준)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60병(20% 알콜함량 기준)의 알콜량으로 환산해보면 4ml 정도 미세한 증가를 보였다는 점에서 과거와 크게 차이가 없다고 판단된다. 음주량의 경향성에서는 선행연구가 현재 음주량 100 기준 과거음주량이 100.3, 미래 예상 음주량은 90.8 이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과거와 현재 음주량의 패턴은 여성들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맥락인 직종에 따라서도 거의 변화가 없다. 반면 미래 예측량에서 선행연구

에서는 10%가량 적게 마실 것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소주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맥주는 3%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된다. 하나는 미래의 음주환경이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성들이 인식한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지금 음주량이나 행동에 대해서 만족하기 때문에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여성의 음주가 일상생활의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음주를 숨기고 싶거나 부끄러워하는 일탈행동이 아닌 자연스러운 정상문화의 하위문화로서 실태와 맥락을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기존 여성음주관련 연구들은 전통적인 성역할에 기반하여 여성음주행태를 문제행동으로 개념화하고, 이러한 틀로 접근 한 결과 여성알콜중독자나 문제행동에 과도하게 집중하였다. 그래서 현대의 일상화된 여성음주행태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접근이나 자료를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본 연구의 주된 의의는 여성음주행태의 일반적 특성을 알 수 있는 보편 문화 맥락에서 여성음주의 세부적인 특성과 차이 및 변화의 양상을 알아보고자 접근하였다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월 1회 이상 술을 마신 경험이 있는 수도권 거주 여성 30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들과 비교를 위해 같은 조건의 남성 495명과 비교를 통해 여성음주의 맥락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러한 맥락을 음주 일반행동과 주종, 상황, 직종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이를 2004년도에 실시된 선행연구와 비교를 통해 그 변화의 추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여기서는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와 이러한 결과가 보여주는 시사점 그리고 제한점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여성들의 음주행태를 요약하면 여성들은 맥주(55.9%)를 1주에 한번 마실까 말까한 비율로 음용하며 주로 친구나 가족과 식사(85%) 시 1차(66.9%)로 끝내며 주량은 소주 반병(.60)이 약간 넘는 정도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여성음주의 특성은 남성들의 음주행태와 비교할 때 음주횟수, 음주량, 음주 차수를 비교할 때 거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선행 연구와 비교해 보면, 음주량, 주된 음주상황은 거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선호 주종이 소주에서 맥주로 바뀌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런 점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여성음주의 동기와 기능이 '사교동기'가 주로 작용하며, 성인 가족여가의 일부분으로서 정착되고 있다는 결과가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교동기는 음주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신행우(1999)의 연구와 관련지어 해석해 보면, 여성의 음주문화는 문제음주와는 거리가 있는 보편문화로서 정착되고 있음이 시사된다.

둘째, 여성들의 연령에 따른 음주행태를 요약하면, 20대(.69)의 많은 음주량이 30대(.53)에서 급격히 줄어들다가 다시 40대(.59)에 늘어났다. 이것은 30대 여성들이 결혼 적령기와 어린 자녀 육아를 담당하는 생애주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인 요인의 변화가 음주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시사된다. 여기에서

주목할 결과는 여성 음주 패턴과 성격이 사회적 역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여성 음주량과 횟수를 고려할 때 대부분 적절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30대 여성들의 음주량과 횟수 감소는 여성들이 마시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마신다기 보다는 마시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참거나 줄이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셋째,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인 직업별 음주행태를 요약하면 학생들은 소주에 비해 맥주를 조금 더 선호하며 과반 수 이상이 주 1회 이상 음주를 하고 1회 마시는 양이 소주 .73병을 마셨다. 사무직과 생산직 중 근무자들은 거의 여성음주행태 평균적인 패턴을 보였으며, 전업주부는 가장 적은 횟수와 음주량(.49)을 보였다.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 소수이기는 하지만, '혼자' 마시는 경우가 대부분인 '기타'의 비율이 3.5%라는 점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의 음주문제 패턴이 숨어서 혼자마시다가 발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임선영, 조현섭, 이영호, 2005).

넷째, 여성음주 상황의 맥락을 상세히 조사하기 위해 이들이 자주 마시는 맥주와 소주의 선택이유와 이미지 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맥주의 선택이유는 '부드럽고 상쾌한' 미각적인 이유가 가장 컸으며, 이러한 이미지는 '젊음', '유행/세련'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반면 소주의 경우는 '가격이 저렴해서'라는 경제적 이유가 주된 선택 동기였으며 소주의 이미지는 '오리지널/정통성', '중년', '경제적'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이러한 특성을 남성과 비교해 보면, 소주의 선택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맥주의 선택에서는 맥주의 고유 '맛'과 더불어 소주나 그 외의 주종이 알콜 도수가 높거나 쓴 맛이 강해서 이를 대체할 주종으로

맥주를 선택하는 경향이 시사된다. 이미지의 경우 성차를 살펴보면, 남성들은 여성들에 비해 소주에 대해 '친근함/편안함'의 정도를 유의미하게 높게 지각하고, 맥주에 대해서는 '건강/웰빙'의 이미지를 강하게 지각하고 있었다. 여성들은 맥주에 대해 '유행/세련'이라는 이미지를 소주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여성들의 음주 주종의 선택이 자신의 이미지를 드러내거나 강조하는 '기호학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이 시사된다.

다섯째, 여성 음주 상황 및 직종에 따른 패턴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맥주 대부분의 음주상황에서 선호되지만 '직장동료'로서 오히려 소주가 맥주보다 두 배 이상 높은 63.9%의 응답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 따른 선택 주종이 다르다는 것은 음주 상황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런 점에서 '친구/선후배'와 마시는 상황은 사회적 음주상황이지만 이것이 '직장동료'와 마시는 음주의 성격보다는 '가족/친지'와 함께 마시는 음주상황과 음주량과 차수 등의 패턴에서 유사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들의 음주 패턴이 '친구/선후배'가 '직장동료'와 유사했던 것과 비교하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즉 여성들은 '친구/선후배'와의 음주상황을 비공식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반면, 남성들이 이러한 상황을 여성들에 비해 더 공식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성별차이는 술자리에 대한 필요성과 의미에 대한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 즉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친구/선후배'와의 음주에 대한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한 인식이 남녀차가 나뉘는 분기점임이 시사된다.

여섯째 음주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소주는 현재 대비 과거와 미래의 음주량의 변화가 1% 안팎으로 미미했으며, 맥주는 이보다 약간

큰 3% 정도 미래에 더 마실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의 결과가 현재 음주량 100 기준 과거음주량이 100.3, 미래 예상 음주량은 90.8으로 현재는 과거와 비슷하게 마셨으며 미래에는 좀 덜 먹으로 것으로 예측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본 연구 결과는 거의 변화가 없거나 약간 더 마실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것은 미래의 음주환경이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성들이 인식한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지금 음주량이나 행동에 대해서 만족하기 때문에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한다는 점이 시사된다. 이러한 결과는 신연희(2003)의 연구결과인 여성 음주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가정과 직장 생활 내에서 스트레스는 막아주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지지하는 결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박희량, 이장주, 2004)와 차이점을 통해 여성음주문화의 변동을 살펴보면, 소주의 선호도가 감소되고, 저도수 음용주종인 맥주의 선호도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주종의 변화에 비해 음주량의 변화는 크게 없었으며, 맥락에 따른 주종 선호도 패턴 역시 공적 맥락인 '직장동료'와 술자리에서는 소주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는 점에서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하지선(2009)의 연구에서, 직장 여성들의 원치 않는 음주경험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소주를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선택한다기 보다는 맥락에 따른 선택으로 소주를 마신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앞선 선행연구에서 현재 대비 미래 음주기대량이 10% 안팎으로 적게 마실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현재와 미래가 5% 미만의 증감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

러한 음주량과 패턴의 유지할 것이라는 점에 서 차이가 있었다. 이는 과거에 비해 적절한 주량에 맞는 음주패턴이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정착되었음이 시사된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시사점은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늘어나고 음주의 기회와 빈도가 증가되면서 문제음주로 이어지기 보다는 여성들에게 맞는 적정음주패턴을 찾아 즐기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 및 해석을 적용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월 1회 이상 음주 경험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여성 성인 전체의 음주경향성으로 해석하는데 무리가 따른다. 물론 최근 연구(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2010)에 의하면 성인의 연간 음주 경험률이 83%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음주 경향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결과로는 판단되지만, 20%에 가까운 음주를 하지 않는 여성들이 ‘음주’에 대한 인식과 이들이 술을 마시지 않는 이유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병행 될 때 여성 음주에 대한 보다 보편적인 지식이 생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추후 연구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두 번째는 본 연구에서 여성 연구참여자들의 표본 연령이 20세에서 49세 이하로 50세 이후 연령층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체 연령을 포괄하지 못했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여성들의 연령과 사회적 역할에 따라 음주 패턴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중·고령 여성 음주에 대한 연구가 추후 연구에서는 보완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음주패턴이 남녀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음주 동식자들의 성별에 따른 음주행태의 패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예를 들면, 여성들만

마시는 경우와 남성들과 함께 어울려 마시는 경우의 음주행태의 패턴이 달라지는지, 달라진다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연구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 음주에 관한 연구들에서 대부분의 결론은 이제 여성음주는 보편적인 문화현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현상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의 차원을 넘어서 심리적이거나 사회문화적으로 개인이 건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미력하지만 본 연구가 정상문화로서 여성음주의 적극적인 측면을 다루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계하 (2004). 미혼 여성의 음주양상과 흡연 정도 및 우울에 관한 연구. *간호과학*, 16(1), 18~25.
- 김광기 (1996). 음주양태 및 음주관련문제에 대한 공중보건학적 연구. *대한보건협회지*, 22(1), 152~187.
- 김통원 (2001). 도시직장인의 음주 및 음주운전에 관한 실태조사. *가족복지학*, 7, 35~57.
- 김지미, 이정애, 김성희 (2002). 중년전업주부의 음주경험.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3(4), 732~742.
- 박희량, 이장주(2004). 여성음주문화 실태 연구: 여성이 술을 마실 때. *한국심리학회: 여성*, 9(2), 39~52.
- 배성일 (1993). 입원한 여성 알콜중독환자에 대한 임상적 고찰. *신경정신의학*, 32(3), 407~41.

- 신연희 (2003). 여성 음주자의 특성과 음주인. '여성음주에 대한 특별세미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신영주, 김유숙 (2009). 여성 알코올 의존자의 중독 과정: 근거이론 접근방법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4), 683~710.
- 신행우 (1999). 음주동기와 음주문제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5(1), 93~109.
- 심문숙 (2007). 저소득 독거노인의 생활경험.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1(2), 171~181.
- 양승희 (2006). 일지역 여성의 음주인식, 음주행태, 문제음주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 7(2), 23~45.
- 오상우 (2009). 음주가 비만 및 대사증후군에 미치는 영향. 대한비만학회지, 18(1), 1~7.
- 임선영, 조현섭, 이영호 (2006). 여성 알코올중독자의 중독과정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4), 869~886.
- 장수미 (2008).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음주문제와 영향요인.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8, 152~174.
- 정성후, 김성부, 장기용, 손진욱, 박철수 (1997). 입원한 남성 및 여성 알코올리즘 환자의 인구학적, 임상적 및 인격적 특성비교. 신경정신의학, 36(4), 688~704.
- 정슬기(2007). 여자 대학생의 문제음주 영향요인 분석.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7, 176~198.
- 최은영 (1993). 자서전 연구방법에 의한 알코올 중독과정의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하지선 (2009). 여성직장인의 음주행동 영향요인 연구: 성역할, 직장음주문화를 중심으로.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금선, 양승희, 전경구 (2003). 스트레스 지각과 대처가 여대생의 스트레스 증상과 음주관련 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3), 565~579.
- 한태선 (2000). 걱정음주에 대한 사회·문화적 접근, 대한보건협회학술지, 26(4), 383~392.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2010). 음주실태 및 음주문제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연구.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http://www.karf.or.kr/information/alcoholDB_list_9.asp에서 2011년 4월 28일 추출).
- Barbor, T. F., Higgins-Biddle, J. C., Saunders, J. B., & Monteiro, M. G. (2001). *AUDIT: The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Guidelines for Use in Primary Care*(Second Edition). WHO: Department of Mental Health and Substance Dependence.
- Copeland, J. & Hall, W. (1992) A comparison of predictors of treatment dropouts of women seeking drug and alcohol treatment in a specialist women's and two traditional mixed sex treatment service. *British Journal of Addiction*, 87, 883-890.
- Kinney, J. (2000). *Loosening the grip: A Handbook of Alcohol Information*, Boston: McGraw-Hill.
- Wilsnack, S. C., & Wilsnack, R. W. (1990). Women and substance abuse: Research directions for the 1990s.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4, 46-49.

1 차원고접수 : 2011. 5. 7.
심사통과접수 : 2011. 9. 14.
최종원고접수 : 2011. 9. 23.

When Women Drink: What to Drink in What Context is?

Hee Rang Park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angju Lee

Research Institute Digital & Happin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 women drinking culture, not as problematic approach but as normal culture approach.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800(man:495, women:305) adult people who have experience of drinking more than once in the last month.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women who preferred beer, and were mainly drink with friends and family situation. Women drinking frequency were usually less than 1 time per week. Women alcohol consumption amount at a time was little more than half a bottle(converted into *soju-Korean traditional distilled liquor*). Second, the age of most women in their 20s drinking alcohol properties, are decreased and 30s tended to be rising again in 40. Third, the reason for the selection of beer is flavor, while the main factor why the choice of *soju* mainly acted as an economic factor. And the main image of the beer 'youth', 'fashionable / stylish', whereas the 'original / legitimacy', 'economic' image was strong on *soju*. Selecting the type of alcohol, women is exposing their 'semiotic meaning'. Fourth, 'friends/senior and junior' context in alcohol consumption is different in gender: women's context is similar to the context of 'family', whereas man's context of 'colleagues' were similar to those of the context.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Woman alcohol consumption, Woman drinking culture, Gender difference in drinking, Drinking context, Image of bear & soju*